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의회

ㅣ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ㅣ

박 주 화 의원

“대전천 정비사업이 시급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안학교 설립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박 주 화 의원

◉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 사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천 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의 도심은 3대 하천이 인접해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천은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폭이 좁아 통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의 위험성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해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하천 교량 능력검토 결과를 살펴보아도 대전천에 있는 대부분의 교량은 여유고와 경간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유교와 경간장은 홍수 재해와 직결되는 요소로 대전천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뿐만이 아니라 자료에서 보시는 곳은 옥계교 인근지역인데요, 사진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퇴적토가 쌓여 넓은 하중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하중도 밑에 징검다리가 12개 정도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하천을 건널 수 있었는데 굽이쳐 흐르는 하천 구조로 퇴적토가 계속 쌓이면서 하중도가 형성되었고 징검다리는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보행자 통로보다 더 높은 하중도로 인해 비가 조금만 와도 금세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보행자 도로를 물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중도를 정비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전천을 포함한 3대 하천은 우리 대전의 중요한 환경자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차례의 준설작업이 없었던 결과는 3대 하천 곳곳을 하천 범람 위험지구로 만들었습니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을 병존하면서 하천 준설작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핵심사업인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해위험이 높은 교량 주변의 퇴적토를 정비하는 준설을 실시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퇴적토 정비계획은 최대 10년을 예정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저는 대전시가 추진계획을 앞당겨 3, 4년 안에 모든 하천에 대한 준설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예정된 준설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고 중장기로 계획된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한민국의 20살 이상 성인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의 주목적은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형 질병을 조기 발견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마흔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주요 암 검진도 받을 수 있어 무료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재촉받기도 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 2년에 한 번쯤은 꾸준히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를 통해 건강검진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검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자영업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쉬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자영업자 스스로 감수해야만 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검진을 포기하는 비율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국가검진 대상 420만 여 명을 분석해보니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인과 비교하면 미검진 비율이 7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포기 결과는 곧바로 질병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은 자영업자보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영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달에 2024년 대전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전형 강한 소상공인 · 골목상권 육성을 비전으로 5대 핵심전략, 43개 정책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총사업비 562억 원을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에 투자하기로 한 시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업역량 강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전의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지원정책이 포함된다면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보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에서는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소속 전 직원에 대해 매년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검진 연도가 아닌 해에는 본인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직계가족 1인에게 건강검진비 사용을 넘길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직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몇몇 만나 물어보니 이 사업 덕분에 초기 암을 발견하여 다행이었다, 비용이 부담되어 추가검진이 쉽지 않았는데 시 정책 덕분에 종합검진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정책을 영세 자영업자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밑바탕에는 대전시민의 건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가능성이 높은 요식업계 자영업자,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미용업계 자영업자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 건강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모델 삼아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가칭 대전형 자영업자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시의 건강지원 사업이 시행된다면 국가건강검진과 연동해 영세 자영업자의 암 발생률을 낮추고 병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고, 국가건강검진 취약계층의 검진율을 높이는 데도 정책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하는데 제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학업 중단율은 초 · 중 · 고

전체 1.0%로 2021학년에 비해 0.2% 포인트 상승했고 초등학교 0.7%, 중학교 0.7%, 고등학교 1.9%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최고 높은 수준의 학업 중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대전시 학업 중단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추세입니다.
학업 중단사유 중 부적응을 이유로 한 지표 역시 전국 평균 대비 대전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직업계고로 이분화되어 다양한 진로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교육과정을 적응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업 중단율 증가는 대안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현재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내 대안교실, 꿈나래교육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개원했던 대전 최초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은 당초에는 중학교 과정으로 시행되었지만 고등학교 수요를 반영해 202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대전 공립 대안학교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을까요?
저는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9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가칭 미래누리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5월에 세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완하는 계획을 내놓은 이후 또다시 대대적인 변경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변경계획의 핵심은 이전 설립지로 논의되던 옛 방성분교, 학하초 부지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자 복용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예정하던 치유 · 힐링형 교육과정에서 미래 ·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점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비어 있는 복용동 부지에 설립지를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안학교 설립에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에서도 대전형 대안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4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목표로 한다 했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교육감님,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하셨던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고 2022년도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육감님 마지막 임기가 절반을 향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안학교 설립은 추진이 가능한 건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 17개 시 · 도 중 13개 시 · 도가 공립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 곳이 아닌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임기 내에 대안학교가 첫 삽을 뜨는 의미 있는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대안학교 설립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대전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3대 하천 준설 조기 실시와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하천 관리 또 소상공인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하천의 홍수,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작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준설사업은 갑천 원촌교 및 만년교 주변, 유등천 안영교 주변 그리고 대전천은 옥계교 하류부터 한 5㎞ 정도 대전천변에 39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3월 중에 발주해서 6월까지, 우기가 오기 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 이후 중장기로 계획된 약 15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준설사업을 통해 하천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매년 교부하는 준설사업비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3대 하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의 국비 확보 후 중장기 대상지 준설사업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만년교 주변이나 일부 지역에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것이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갑천 2구역 국가하천 지역하고 유등천 국가하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8개소 정도 꼭 해야 되는데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국가 3대 하천 부분에 여러 가지 준설이 필요한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건강검진비 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바쁘다 보니까 한 4년 됐나, 건강검진 한 지가 한 5년 됐나.
올해 하려고 했더니 지금 또 병원 파업, 저렇게 집단행동 때문에 저도 연기했습니다만 건강검진을 자주 하는 건 굉장히 건강에 꼭 필요한 일인데 소상공인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건강검진 받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금리나 고물가 또 인건비 증가, 나아가서 인터넷 판매나 새벽배송 등이 활성화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표현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국의 소상공인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전은 한 14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 한 3년 겪으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안정도 사실상 상당히 불안해졌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어려움은 역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가 좀 더 경제적인 규모가 크고 세원이 추가 확보된다면 더 과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여건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1차 추경 때 소상공인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 한 6억 정도 있고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적용됩니다.
또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을 대비해서 목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15억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 ·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납입보험료 30%, 고용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 정책 부분은, 14만 5,000명 가까이 되고 도 · 소매업, 숙박 · 음식업 또 건설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뭉쳐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틈에, 아마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전형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건강 지원사업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또 2년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검진 제도의 어떤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리고 또 시 재정여건, 대상의 형평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자영업자분들 중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특히 더 사각지대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모든 행정을 적극적으로 임해 왔고 그런 기조는 아마 일상적으로, 행정업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빠르고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시민들에게 똑같은 사업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고 도시발전에 효과가 있다는 이런 기조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박주화 의원님께서 대안학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속적인 교육과정 TF와 대안교육연구회 운영을 통해서 특색 있는 개별화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학교를 선정 · 운영하였고 2017년에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꿈나래교육원을 설립 · 운영하면서 2022년에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촉구 5분 자유발언 이후 대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에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학교 설립 심사자료를 교육부로 제출하여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말씀드리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와 학교 설립 예산을 확보하고 2025년 9학급 108명 규모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학교의 기본방향은 삶과 앎을 통합하는 체험 중심 특성화교육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교 부적응, 학습 무기력, 사회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공교육 책무를 다하고 자존감 고취, 다양성 존중, 개별 맞춤형, 조화로운 특성화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갖추도록 모든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다양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박주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